

PA-32

**영남지역 조사료 경영체의 이탈리아라이그라스 논 재배 실태조사**김상열<sup>1\*</sup>, 배현경<sup>1</sup>, 서종호<sup>1</sup>, 황정동<sup>1</sup><sup>1</sup>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논이용작물과**[서론]**

최근 쌀 생산조정제의 일환으로 논 이용 타작물 재배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어, 논을 이용한 국내 자급률이 낮은 새로운 벼 대체 작목의 탐색요구가 증가하고 있다. 우리나라 조사료재배 면적은 증가 추세이나 자급률은 81%로 정체되어 있어 사료작물자급률 증대를 위해 사료작물 연계 작부체계 기술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. 따라서, 사료작물 중 재배면적이 가장 많은 이탈리아라이그라스 연계 작부체계 기술개발 및 농가 보급 확대를 위해 경·남북 조사료 경영체의 이탈리아라이그라스 재배 및 후작 작부체계 실태를 조사하여 이탈리아라이그라스 작부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.

**[재료 및 방법]**

본 연구는 경·남북 39개 시군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얻어 이탈리아라이그라스를 재배하는 조사료 경영체를 대상으로 서면 조사 형태로 이루어졌고, 이를 바탕으로 경·남북 논 이용 이탈리아라이그라스 재배 현황을 분석하였다.

**[결과 및 고찰]**

1. 총 39개 지역중 응답지역은 26개소로 응답률은 67% 이었고, 응답농가수는 170 농가 이었으며 IRG 재배농가는 경남지역이 경북지역보다 2.6배 많았다.
2. IRG 파종시기는 남부지방 파종적기인 10.10~10.20 이전에 파종하는 농가가 66~75% 이었으나 많은 농가들이 11월초까지 파종하는 농가가 있어 입모 실패의 원인이 될 것으로 추정 된다.
3. IRG 파종은 벼 입모중 파종이 78%로 벼 수확후 기계파종보다 3.6배가 많았고, 주로 비료살포기를 이용 파종 하였고 그 다음은 드론 이용 파종순이었다.
4. IRG 파종은 단독파종이 85%로 타작물 혼합 파종보다 5.7배 많았고, 호밀과 혼합 파종이 청보리와 혼합파종보다 2.1배 많았다.
5. IRG 수확은 경북은 5월 11일~5월 30일, 경남은 5월 11일~5월 20일에 각각 62%, 56%로 가장 높았고, 그다음은 6월 1일~6월 10일 사이였다.
6. 논에 IRG 재배 후작으로 가장 선호하는 작부체계는 벼가 86%로 가장 높았고, 그다음은 수단그라스 8%, 옥수수 5% 이었으며 콩, 수수는 미미하였다.
7. 논에 IRG 재배의 문제점은 습해발생이 23%로 가장 높았고, 그다음은 IRG 수량이 낮음>파종작업이 어려움>입모실패 순이었다.
8. IRG-벼, 다른 작물과 이모작시 문제점은 후작물과 파종작업이 촉박함이 62% 가장 높았고, 그다음은 소득이 낮음> 후작물 생육(품질)이 불량함 순이었다. 따라서 IRG 재배 후 농가가 선호하는 벼-IRG 작부체계별 적응 벼 품종 선발 및 적정 작형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.

**[사사]**

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아젠다 사업(과제번호: PJ01380801)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.

\*주저자: Tel. 055-350-1163, E-mail, kimsy3@korea.kr